

고닥 Kodac Ko



사진_권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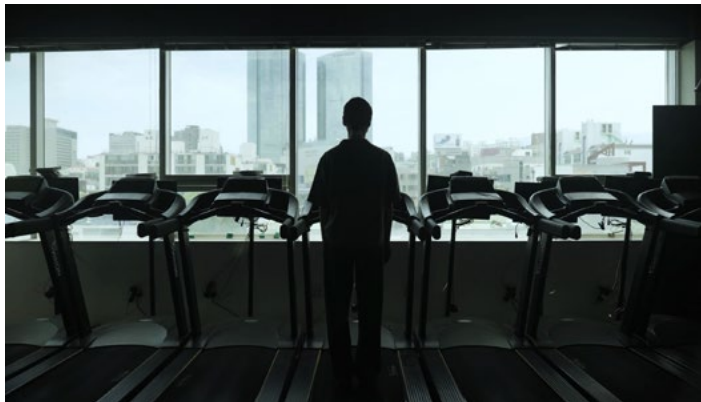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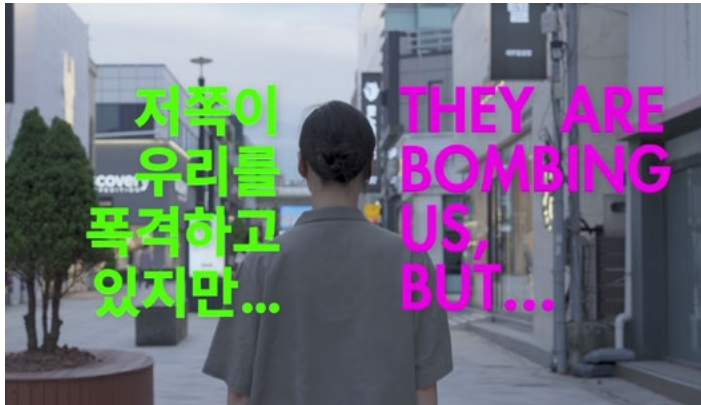


<이주하는 인간-호모 미그라티오> (2023, 제주도립미술관) 전시 전경

영상<파도, 어디에나 있는>은 독일 언론매체에서 쓰였던 ‘이주민 쓰나미’, ‘이주 물결’와 같이 대중에게 위협감을 주려는 표현의 ‘파도’를 역이용한다. 언제 어디에나 있어 왔고 이동과 순환하는 파도의 움직임을 빗대어 이주의 흐름은 인간 본연의 자연적인 것임을 말한다.

영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주를 조명한다. 이주는 이주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서는 떠나야 하는 공허함을 남긴다. 이 긴장을 출발점으로 베를린과 제주에서 이주민들의 이야기와 고향에 남겨진 가족, 친구들의 문자메세지와 편지를 수집했고, 글작가 제프 우드(Jeff Wood)와 함께 이 자료들을 재구성하고 떠남과 머무름의 불가분한 결합을 포착하는 텍스트로 재작업하였다.

공동연출 : 요하네스 말파티 Johannes Malfatti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 2022, 2채널 비디오, 22'24"
Was I there at all, 2022, 2 channel video, 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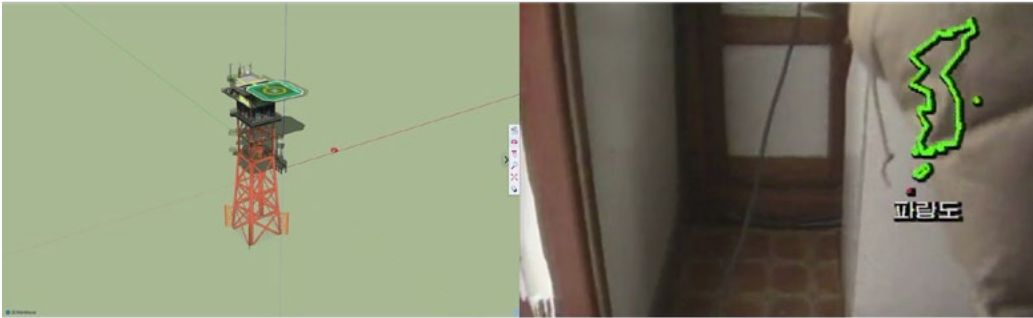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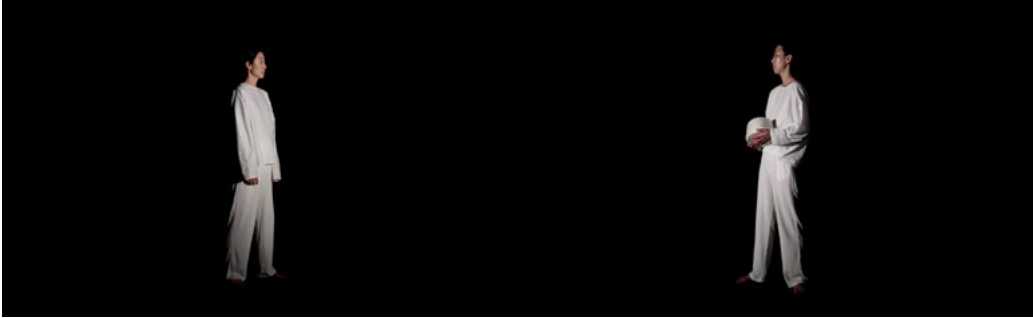
<https://vimeo.com/764599644/397b8c67d6>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 (2022, 아트스페이스 빈공간) 전시 전경

2채널 영상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상상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오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상상과 실제는 어떤 연관으로 강하고 흐리게 연관되는가?’의 질문에서 시작했다.

제주해녀들의 민요에 등장하는 이어도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산다고 믿는 상상 속의 피안의 섬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고 영해의 구역을 공고히하던 과정에서 이어도는 지정학적 좌표를 가진 실제 장소가 되었다. 수면 아래 4.6미터의 바위에 해양 연구센터가 건설되면서 수면 위의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고, 현재는 동중국해의 정치,외교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어도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상상과 현실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이어도’의 이중성을 탐구한다.



방 사이의 방, 2021, 비디오 설치, 6'22"
Room In-Between, 2021, video installtion, 6'22"

<https://vimeo.com/599101829/461e6068c5>



《No It can assess an actioN》(2021, 라움온디멘드-알테문제, 베를린) 전시 전경

싱글 채널 영상 <방 사이의 방>은 의식이 있는 수면상태 (Hypnagogia)에의 과도기적 상태를 공간화하고 그와 관련한 시각적 감각을 다룬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생성 혹은 변화한 정체성이 머무는 곳으로 재해석된 장소이다. 한 겹의 눈꺼풀을 감으면, 피부를 통해 투과하는 빛과 눈의 착시로 인한 빨간방이 열린다. 이 빨간방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공간이자 눈을 감고 뜨는 사이의 물리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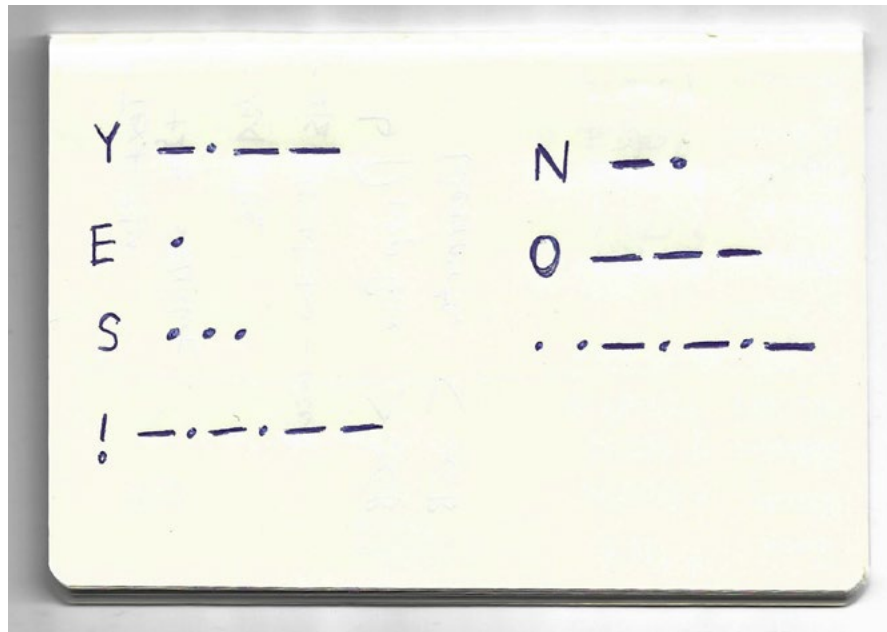
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깨어있는 수면의 경계에서 현실과 열린 꿈은 서로 대치한다. 외부 자극이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끊어내고, 부서지고, 모이고 쌓이는 행위가 일어난다. 상공을 날으는 기내에서 들을 수 있는 적색소음(Red Noise-Brown Noise)이 영상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운드는 출발지와 도착지, 현실과 꿈,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떠 있는 상태를 상상하게 한다.



더블 텅스, 2021, 가변설치, 에폭시레진, 형광등, 종이출력물, 커튼, 나무, 스펀지, 쇠사슬, 집게, 도끼
Double Tongues Installation, 2021, dimensions variable, epoxy resin, neon light, print on paper, fly curtain, wood, foam, chain, spring clip, steel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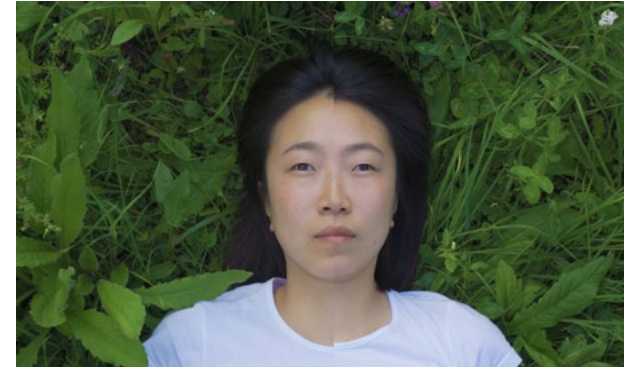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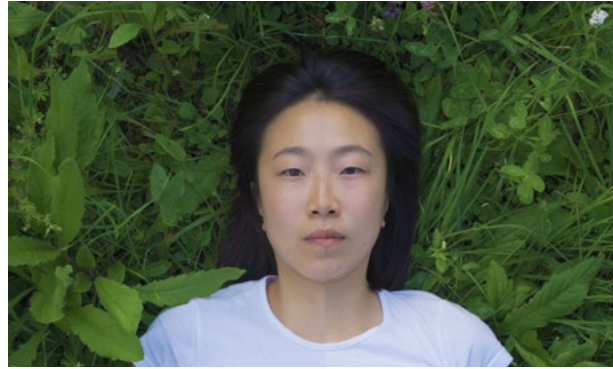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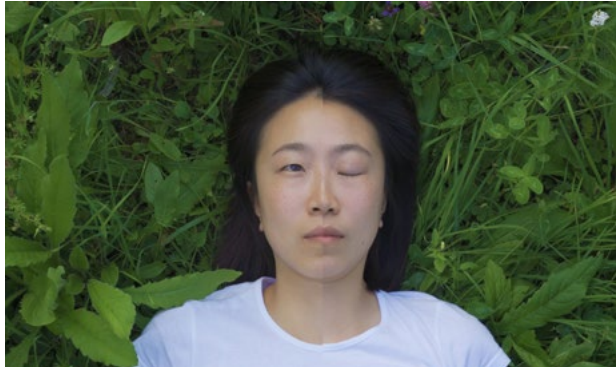


혀는 언어를 발화하는 신체기관으로 근육성 기관이다. 모국어과 외국어의 두 언어를 구사하며 부딪혔던 개인적 감정들을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으로 형상화했다. 묶여있거나 부서지거나 녹아 내리는 듯 보이는 오브젝트는 에폭시 레진으로 제작되었고, 일상에서 수집된 재료들과의 설치를 통해 관계와 서사를 만든다.



싱글 채널 영상 <Yes and No>는 조지 오웰이 소설<1984>에서 창조한 '이중 사고(Doublethink)'의 개념에서 착안한다. '이중사고'는 두 개의 모순된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은 상반되는 의미를 하나의 입으로 말하는 선형적 발화가 아닌, 두 눈을 통해 동시적,복합적 발화를 시도한다.

영상은 반으로 분리되어 모스 부호(Morse Code)로 한 쪽 눈은 Yes! (-.- -.-.-) 다른 한쪽은 No. (-. --- .-.-)를 눈깜빡임으로 신호를 보낸다. 한 곳을 향하던 두 눈은 각기 다른방향으로 각자의 시선을 옮긴다. 두 눈동자는 두개의 분리, 조정능력을 가지고 Yes 와 No 의 사이를 오간다. 시선들은 고민하며 교차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의 시선으로 관객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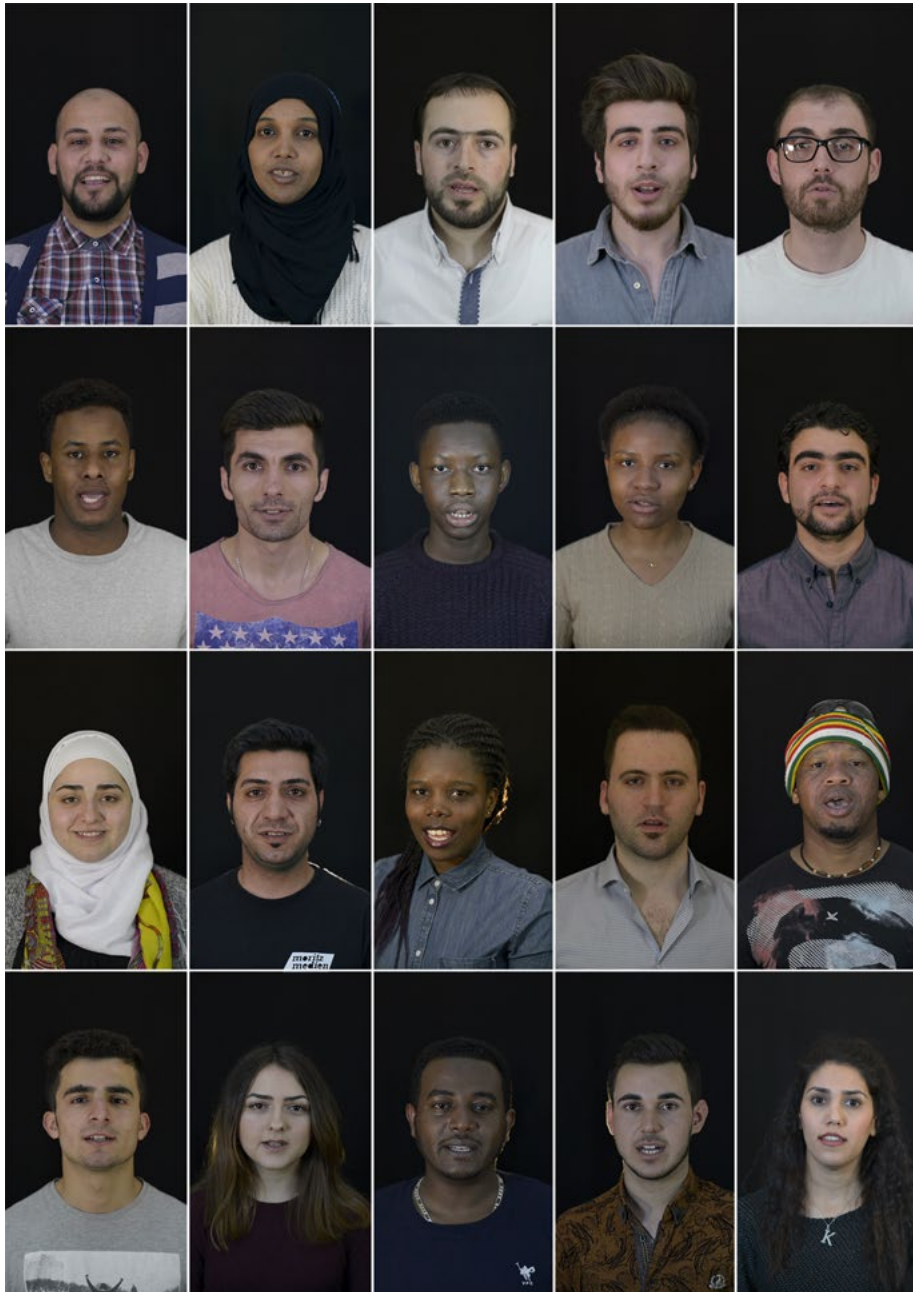
-전(후), 2019, 비디오, 9'11"
P(re)-, 2019, video, 9'11"

<https://vimeo.com/330338373/c4405060f5>



P(re)- 라는 제목은 Pre-('- 전의')와 Re-('- 그 후', '다시') 두 단어의 결합으로 '준비하기 위한 준비'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결과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과정의 단계로 연결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된다. 영상은 과정과 결과, 준비와 시작 사이의 찰나를 도려내고 준비 순간의 나열을 통해 '과정'이 가진 힘의 응집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가 과정이고 어디서부터가 결과의 시작인지에 대한 환기를 유도한다.





이 영상 설치에는 독일로 이주한 20명의 ‘영상 초상’의 형태이다. 이들은 독일에서 전화, 전신에서 발음의 오류를 줄이고 철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알파벳 표(A-Anton, B-Bertha, C-Cezar....)를 이용해 독일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신의 이름에 관한 의미나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이름을 통해서 사회의 수용성, 문화적 전통, 개인적 경험, 가족 유산과 연관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점을 확인한다. 언어가 주로 사회적 입구로 기능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와 동시에 언어가 가진 한계에 부딪힌다. 모국어로부터 이전된 언어는 그 사이에 빈 간격, 이름의 단축 그리고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복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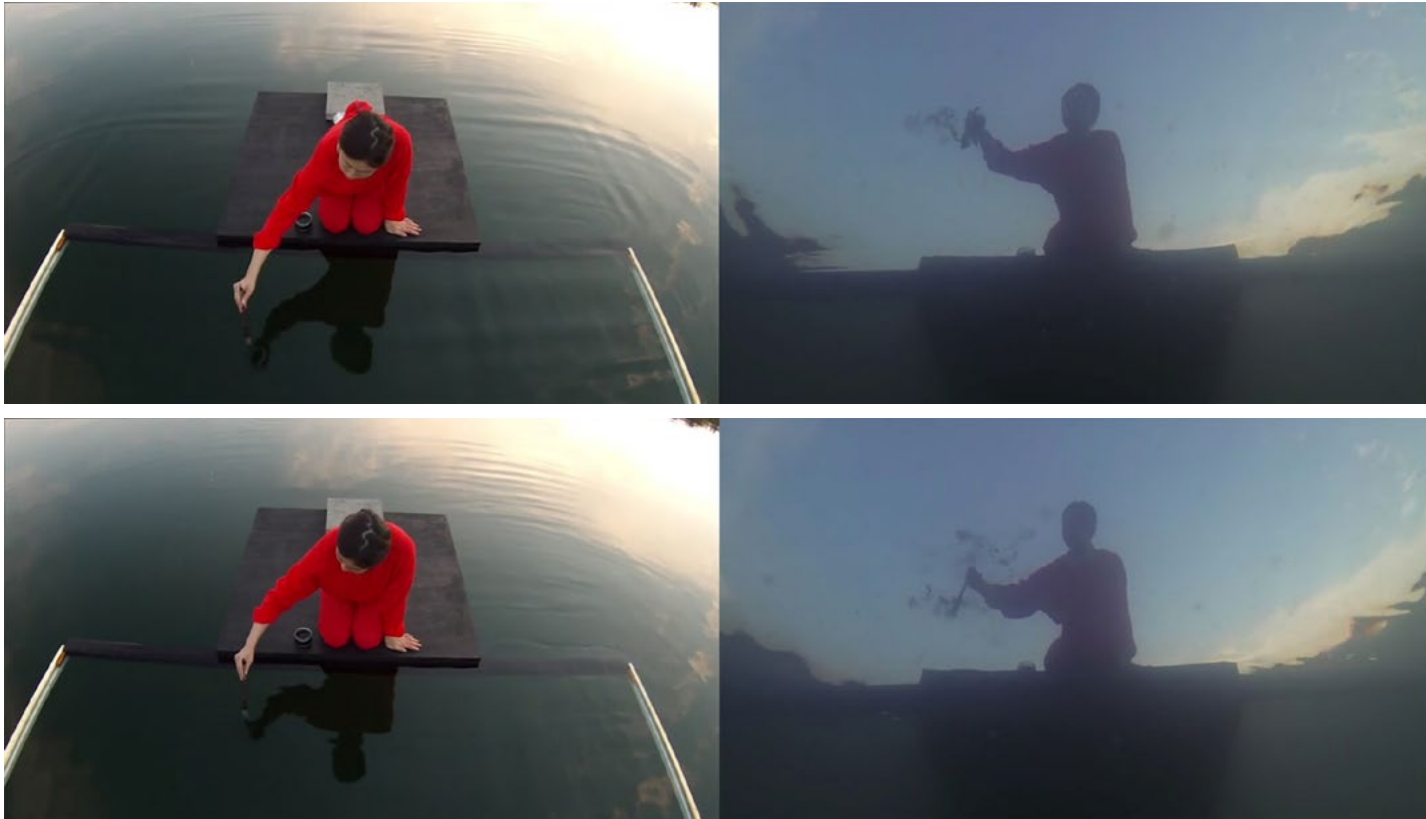




<기울문자> (2015, 아트막스,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전시 전경

2채널 비디오 설치 <안부를 전하며(Liebe Grueße)>는 물 위에 먹물로 편지를 쓰는 행위를 수면 위와 아래에서의 두 개의 다른 시점에서 촬영하였다. 수면 위 시점의 발신인 '나'는 물 아래의 시점의 수신인 '나'를 서로 마주보는 2채널 영상설치를 구현하였다.

영상 안에서 쓰고있는 글은 독일에 있는 내가 한국의 가족에게 쓰는 편지이다. 글 속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고, 그 편지는 나 스스로에게로 도착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숨기고 싶은 글들은 쓰여지는 즉시 물에 흩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진다.





작업의 제목은 같은 뜻의 단어가 두 개의 언어 ; 한국어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 <빨대 Strohalm>에서 나는 타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환한다. 새가 물 속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 속의 물고기가 물 밖에 새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궁금증이 이 작업을 시각화하는 연결 고리가 되었다. 물과 공기는 영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두 나라, 한국과 독일을 비유하고, 나의 입은 다른 두 언어; 숨과 물을 통해 두 개의 다른 공간을 소통하고 연결한다.

학력

- 2014-2017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순수미술 학부 졸업 (담당교수 라이문트 쿨머)
- 2013-2014 터키 이스탄불 미마 시난 대학 교환학생
- 2011-2013 독일 드레스덴미술대학 순수미술 학부 수학 (담당교수 크리스티안 세리)
- 2005-2010 서울 홍익대학교 관화과 졸업

개인전

- 2022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Was I there at at all), 아트스페이스 빈공간, 제주, 한국
- 2021 공간 속의 기호 (A Sign in Space), 플란츠라우어베얼 스튜디오/쿤스트 콜렉티브, 베를린, 독일
브로카의 정원 II (BROCA'S GARDEN II), 디스쿠어스, 베를린, 독일
- 2020 브로카의 정원 (BROCA'S GARDEN), 새탕라움, 제주, 한국
- 2018 마우스피스 (MOUTHPIECE), 새탕라움, 제주, 한국
- 2015 거울문자 (SPIEGELSCHRIFT), 아트막스,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수상, 선정, 레지던시

- 2023 베를린 리서치 연구 지원금, 베를린시 문화재단, 독일
- 2022 노이슈타트 쿨투어 창작지원금, 쿤스트폰드 재단, 노이슈타트 문화재단, 독일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제주문화재단, 제주, 한국
- 2019 게팩스아우스가베(Gepaeckausgabe) 레지던시, 글라루스, 스위스
- 2017 프로젝트 후원, 브라운슈바이크시민 재단,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노미네이트/담슈타트 세체찌온 젊은 작가상, 담슈타트공대 쿤스트포럼, 담슈타트, 독일
- 2016 노미네이트/마알 미디어아트 어워드 2016, 조각 박물관 글라스카스텐 마알, 마알, 독일
에이치오 갤러리 & 에이치투오 탐공원(HO Gallery & H2O Turmpark), 막데부르크, 독일
- 2013 에라스무스 교환학생프로그램, 에라스무스 장학재단, 독일

주요 단체전, 스크리닝

- 2023 잊혀진 장소들(Forgotten Places), 로마 아트 위크, 밀레피아니(Millepiani), 로마, 이탈리아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라티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CICA 실험 영화 및 영상 국제전, CICA 미술관, 경기도, 한국
- 2022 허그: 부유하는 세계를 꺼안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한국
언캐니 빌리지(Uncanny Village), 로스트 워엔드 미즈 영 아트, 뮌헨, 독일
- 2021 컨템포러리 오펜튜니티 파트V, 알테문제, 베를린, 독일
제10회 카이로 비디오 페스티벌, 메다르 컨템포러리 아트, 카이로, 이집트
재회(Wiedersehen), 디스쿠어스, 베를린, 독일
제23회 국제 멀티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오작시 노비 사드, 세르비아
잠겨진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cked), 수러브 갤러리, 노비 사드, 세르비아
No It can assess an actioN, 라움온디멘드, 베를린, 독일
쇼.윈도우(schau.fenster), 쉬틸,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 2020 쇼윈도 스크리닝, 홀 오브 페임, 드레스덴, 독일
- 2019 해적극장, 플랜비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수퍼 메타 포스트 보더스, 오모스페이스, 베를린, 독일
-전(후)(P(re)-), 케팩스아우스가베, 글라루스, 스위스
플라스틱 러브 #2, 갤러리 59 리볼리, 파리, 프랑스
- 2018 제24회 제주미술제, 제주, 한국
탓타르랏랏-TATTARRATTAT, 악시펠, 르 아브레, 프랑스
이브리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Ibrida Festival of the Intermediate Arts), 포를리, 이탈리아
- 2017 수면신경증, 캘러드라이, 하노버, 독일
아,사람 참(CEEHIILNPSSWZ.ACH MENSCH),브라운슈바이크 포토 뮤지엄,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여기 내가 서있는...- 마틴루터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전, 막트키르세, 고슬라, 독일
두려움없이-담슈타트 세체찌온 젊은 작가상, 담슈타트 공대 쿤스트포럼, 담슈타트, 독일
아웃 오브 블루(OUT OF THE BLUE), 그레이라잇 프로젝트, 호엔스브로이크, 네덜란드
- 2016 인터네셔널 컨템포러리 아트쇼 , 중부 독일라디오방송국, 막데부르크, 독일
마알 미디어아트 어워드(Marl Media Art Awards), 글라스카스텐 마알 조각 박물관, 마알, 독일
- 2015 비디오 킬스-보이지않는 도시 교향악단,유티 코네비츠, 라이프찌히, 독일
- 2014 다다 티와이(DADA TY), 헬러라우공연극장, 드레스덴, 독일

